

엄마의 시



(몇년전 썬랜드 화재사
건에서 두 아이를 잃은
아기 엄마의 시입니다.
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
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
에 옮겨봅니다)

여섯 살이잖니
두손으로 씹하기에도
네 개나 남은 나이인데
엄마와 3 더하기 3은 6
아직 일곱 여덟
씹하는 놀이도 끝나지 않았는데
하루밤만 잔다더니
여직 그 곳에서 놀고 있니.

호숫물이 맑아
바닥에 똥구는 조약돌이
말갈게 보이듯
네 눈동자도 그리 맑았지.

너의 향긋한 냄새는
너의 침대 베갯잇에도
너의 꼬꼬마 인형의 때묻은 뺨에도
그리고
지난번소풍 때 찍었던
사진 속의 네 미소에도
남아 있는데
너의 보송보송한 얼굴과
너의 고운 음성은
어디에 두었니.
왜 그리
꼭꼭 숨었니.

아이야!
너가 좋아하던 하늘나라에 누가 있더냐.
너의 고사리 같은 손을
잡아 주는 이
엄마 말고 누가 있더냐.
너를 반겨 안아주는 이
할머니더냐, 할아버지더냐.
그래, 아이야
엄마 없다 울지 말고
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
그분 손 놓지 말고 꼭 잡고 있으렴.

장난기 많아
잠시도 가만 못있는 아이야.
두고 온 세상 궁금하여
무릎 꿇고 내려다 보겠지.
너희들 맑은 눈으로
이 세상 구석구석 보다가
무심한 어른들
욕심 많은 어른들
심술궂은 어른들이
만들어 둔 웅덩이가 있거든
아이야.
너희들이 천사되어
꿈 속에서 일깨워 주려마.
다시는 다시는
이런 슬픔이 없도록 말이다.
아이야,
천사의 날개짓을 하고
오늘 밤
또 내일 밤
잠 못 들어 뒤척이는 엄마 곁에
향긋한 너의 향기 뿌리며
오지 않겠니.
내 그 때라도
너의 보들보들한 뺨에
내 얼굴을 비비고
너의 은행잎 같은 손을
내 눈에 대어
흐르는 눈물을 막아 보련만.
그렇게나마
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
이 내 질긴 목숨
그래도
어이어이 이어 보련만.
아이야,
오늘도 이 엄마는
너를 안았던 가슴이 너무 허전해
너를 부르며 피를 토한다.
보고 싶은 아이야,
귀여운 우리 아가야.

| | | |
|---|---|--|
|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| '2003년 교회생활: "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"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 섬김과 봉사 *의명성 - 명예 |
| 제 5권 18 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 | 2003년 5월 4일 |
| ☎520-9464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 | | |

소파 방정환



(어린이 날을 선포하면서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부탁했던 소파의 글을
어린이 주일에 되짚어 봅니다)

☞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☞

- *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
- *어린 사람을 늘 갓가이 하시고 자조 리야기하여 주십시오
- *어린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하여 주십시오
- *어린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
- *리발이나 목욕가튼 것을 때맞처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
- *낮분 구경을 식하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조 보내주십시오
- *장가와 시집보낼 생각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

☞ 어린동무들에게 ☞

- *뜻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.
- *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.
- *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가튼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.
- *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물건 갈튼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.
- *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.
- *연차나 그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.
- *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.

☞ 잘 살기 위하여 이것을 실행하자 ☞

- *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.
- *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넓게 대접해 주십시오.
- *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.
- *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길러 주십시오.
- *어린이를 결코 옥박질르지 마라 주십시오.
- *어린이의 몸을 자조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.

엄마가 딸에게

계단을 오를 때
남자가 먼저 앞서게 하거라
네가 앞섰을 때
남자의 시선각도를 생각하라
내려 올 때는 네가 앞서라

아버지가 아들에게

많이 배우지 못했다고
무시하지 마라
모두가 무식하다
무식한 분야가 다를 뿐이다

어린이주일 예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 "Calvary" 김은선 어린이&다같이
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

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

*찬송 Hymn 44장 다같이
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1(어린이주일)
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 사도신경
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

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

찬송 Hymn 404장 다같이

기도 Prayer 김교섭 장로
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 18:1-4 인도자

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

설교 Sermon '작은 자처럼 사는 큰자' 김성국 목사

찬송 Hymn 500장 다같이

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

응답송 Response Song '이 믿음을 더욱 굳세라' 다같이 (1절:최옥기, 강순남 집사 가정. 2절:다같이)

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5월의 예배위원◆

| 일자 | 주일기도 | 헌금위원 | 가족찬송 | Tea Time |
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4 | 김교섭 | 박병민 | 최옥기, 강순남 | 정관영, 정성호 |
| 11 | 김순자 | 박상옥 | 결식자봉사부 | 조용건, 최득수 |
| 18 | 김영길 | 박 실 | 현석호, 임병숙 | 최현철, 경덕현 |
| 25 | 김종건 | 박재양 | 선교부 | 권용일, 김경구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'2003년 교회표어 "건강한 가정, 건강한교회"(마 18:4)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| |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| |
| 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 |

- 교우소식
 - *오지영 집사. 3개월 예정으로 머물기 위해 한국방문
 - *김영준 성도, 한국방문 마치고 토요일(3일) 귀국
 -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. 전설에 의하면 품에 안고 복주시던 어린이이중 하나가 커서 인다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랍니다. 주님의 그 품을 부모에게 주셨 습니다.
 - 다음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. 카아네이션 달아드리던 부모님의 가슴이 그리움 으로 남습니다
 - 금주 금요일은 정기구역예배주간입니다.
 - *구역식구 서로서로의 가정위해 기도해서 응답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. 중보기도로 믿음의 교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. 물론 이런저런 즐 거운 애기도 즐거움을 더 할것입니다.
 - 제2여선교회 월례회. Tea Time을 같이 나누면서 월례회로 모입니다
 -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9기.
 - *오랫만에 갖게 되었습니다. 등록교우중 이수치 못하신 교우께서는 참석 바랍니다. <일시> 화(6.13.20.27일) 저녁 7:30 <장소> 교회
 - 결식자 봉사: 주님의 사랑을 품고 결식자봉사부원들께서 담당하십니다
 - *토요일(10일) 10am-1시pm
- <5월의교회력>

| | | |
|----|--------|---|
| 4 | 어린이주일 | 권사기도회(1).기초성경공부(6).구역예배(9) 결식자봉사(10) |
| 11 | 어버이주일 | 믿음의어머니기도회(12).Tracking(17) |
| 18 | 식사천교주일 | 영화클럽(23) |
| 25 | | 남선교회월례회(25) 당회(26) |

◀작한 시인들▶ 흠손(어린이가 쓴 동시) -노정민-

흠 묻힌손
뒤에 감추고 오다가
영광님을 만났네
"어른 앞에서 뒷짐을 지다니
허, 고놈 버릇없군."

흠 묻힌손
뒤에 감추고 오다가
뒷짐 애를 만났네
"애 먹을거냐?
나눔 다오."

흠 묻힌손
뒤에 감추고 오다가
삼살이를 만났네
"뒤에 든게 돌맹이지?
달아나자 달아나."

세상에서 가장 보드랍던게 무어나
묻는다면 첫 키스의 추억과 아이
의 손이라 말하고 싶습니다.
어릴 때 시골에선 왜 그다지 손
에 때가 잘 끼던지요. 용의검사때
면 더운물에 오래 담갔다 박박 문
질러 닦아야 했던 그 손이 이젠
때도 앓아 붙지 않을 만큼 주름주
름 골이 많아졌습니다.
등 뒤에 감춘 은행잎 같은 아이
의 손, 생각만해도 어찌할 수 없는
오그라드는 가슴입니다